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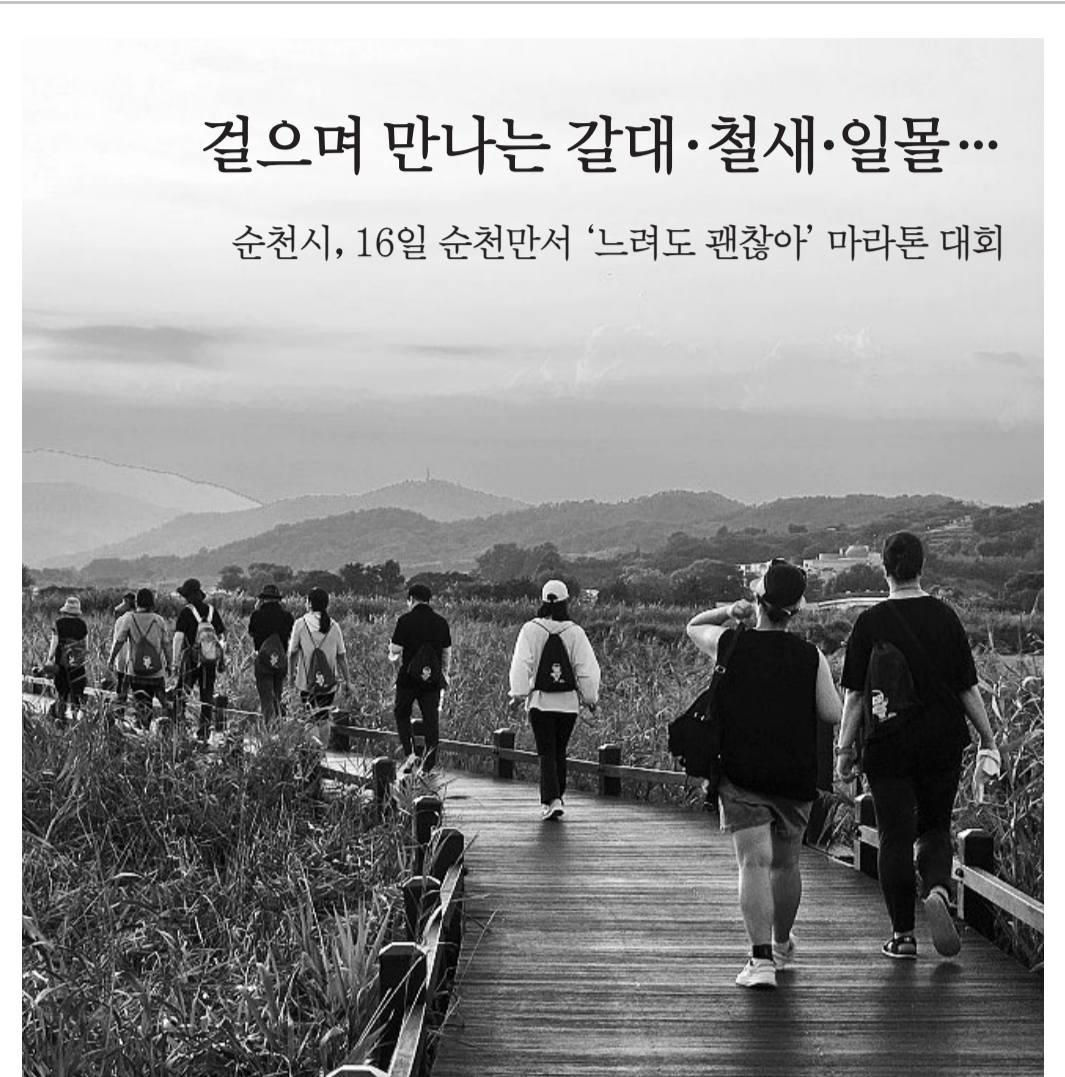
광양 남파랑길 걸으며 가을 속으로... 낭만의 2박3일

15~17일 팸투어...코리야돌레길 다압면~광양읍 4개 코스 60.9km 광양제철소 견학·작은 음악회·야경 투어·맛 체험 등 프로그램 다채

“2박3일 광양 남파랑길 걷고, 보고, 맛보면서 광양의 가을 만끽하세요”
광양시가 코리야돌레길의 남해안 구간인 ‘남파랑길 광양구간 팸투어’를 15일부터 17일까지 시행한다.
광양시에 따르면 명소를 찾아가는 관광도 의미 있지만, 시간적 여유를 갖고 걸으면서 광양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경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팸투어를 시행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팸투어 구간은 남파랑길 광양구간으로 다압면에서 광양읍에 이르는 4개 코스(남파랑길 번호 48-51코스)이며, 총 60.9km이다.

참가 대상은 걷기 좋아하는 성인으로 선착순 20명이며, 참가비는 6만 원이다.
이번 투어는 남파랑길 걷기를 비롯해 김시식지 방문·광양제철소 견학·맛 체험 등 광양의 가을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첫날은 섬진강변 48번 코스로, 걷기 도중 허브 체험과 함께 재첩정식을 맛보고 작은음악회를 즐길 수 있다. 둘째날은 광양만 망덕포구 49번 코스이며 포스코 광양제철소 견학·야경투어 등이 마련돼 있다. 셋째날은 광양읍을 걷는 50번 코스로, 광양숯불고기를 맛보며 투어를 마무리하게 된다.

코리야돌레길은 우리나라 외곽으로 연결하는 걷기 여행길이며, 크게 동해·남해·서해·DMZ 4개 구간으로 나뉜다. 동해안쪽 구간은 해파랑길이라 부르며, 강원도 고성에서 부산까지 50개 코스이다. 남해안(남파랑길)은 부산-해남 구간 90개 코스, 서해안(서해랑길)은 인천-해남 구간 109개 코스, DMZ(평화의 길)은 인천-강원도 고성구간으로 35개 코스이다.
한편 광양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코리야돌레길 ‘쉼터 및 연계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섬진강끝마을에 입구에 남파랑 쉼터를 설치하고 매달 길동무가 안내하는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양시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그달의 걷기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달력을 제공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오는 16일 순천 ‘느려도 괜찮아! 마라톤대회’가 열리는 순천만습지. (순천시 제공)

걸으며 만나는 갈대·철새·일몰...

순천시, 16일 순천만서 ‘느려도 괜찮아’ 마라톤 대회

“순천만습지 걸으며 흑두루미 보는 행운과 함께 순천의 가을 만끽하세요”
순천시의 ‘느려도 괜찮아! 마라톤 대회’가 오는 16일 남파랑길 61구간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빠르게 종점에 도착하기보다는 순천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자신만의 속도로 완주해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가 열리는 남파랑길 61구간은 세계 5대 연안습지이자 최대 겨울 철새 도래지인 순천만 습지와 일몰이 아름다운 와운해변 등을 지나 구간으로, 갈대·갯벌·바다·산 등 자연의 생태를 만날 수 있다.
마라톤 코스는 병랑화포에서 장산마을까지 이어지는 3km 코스, 순천만습지까지 가는 7km 코스, 와운해변까지 가는 14km 코스 등 3개 코스로 운영된다.
각 코스를 완주할 때마다 완주메달을 제공하며, 중간에 쉬어갈 수 있도록 ▲라면부스 ▲물멍부스 ▲버스킹 공연 ▲깜짝 퀴즈 이벤트 등 즐길거리를 운영할 예정이다. 열렬한 관심에 힘입어 참가자 접수는 조기 마감했지만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은 현장에서 참가자들을 따라 걸을 수도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도 7600여 마리에 달했다. 걷는 동안 흑두루미를 볼 수 있는 행운도 맞이할 바란다”라며 “청명한 하늘 아래에서 다양한 생명체가 숨 쉬는 순천의 자연을 느끼며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 오산 관광 케이블카 설치사업 속도낸다

전남도 도시계획위 심의 통과...군 관리 계획 결정 조건부 수용

구례군 오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박차를 가하게 됐다.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열린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도) 결정(변경)’이 조건부 수용으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오산권역 관광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큰 고비를 넘기고 한층 더 속도를 내게 됐다.
구례군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산과 섬진강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관광할 수 있는 오산권역 관광 프로젝트를 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산 케이블카 사업은 2022년 3월 대원플러그그룹과의 실시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구례군은 그해 7월 군의회의 협의 동의를 받은 후, 2022년 11월과 2023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후 2023년 10월 전라남도에 계획 결정을 신청하고 2024년 9월까지 전라남도 관계기관(부서) 협의를 완료했다.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관광객 집중으로 인한 탐방로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광 동선 분산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구례군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된 조건을 반영한 조치 계획을 마련해 11월 중 전라남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본격적인 착공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구례군은 향후 실시계획 인가와 제도사업 허가 등 절차를 거쳐 2025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7년 상반기 중에는 구례군 최초의 케이블카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오산케이블카는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를 연결해 구례군의 관광 자원을 극대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블카가 운영되면 오산을 찾는 관광객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관광객은 섬진강 일대의 아름다운 경관을 새로운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오산 케이블카는 우리 군 관광 산업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면서 “관광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시-한국로지스폴-두산밥캣 수소산업 협력

수소도시 조성사업 MOU 수소지계차 보급확대 등

광양시가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한국로지스폴-두산밥캣코리아와 함께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 협력 및 수소지계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사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청정에너지인 수소를 도시 내 주거·교통·산업 분야 등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실증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기홍 광양부시장·성종국 한국로지스폴본부장·김상철 두산밥캣코리아 ALAO 영업전무 등 3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해 수소도시로 선정된 광양시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해 왔다.
이날 협약을 맺은 3개 기관은 내연기관 지계차를 수소지계차로 교체하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사항으로는 ▲수소 모빌리티(지계차 등)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인허가 등 행정지원과 수소 지계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조사 및 홍보 ▲수소지계차 개발 보급 및 정보공유 상호



협력 ▲수소 지계차 보급을 위한 정비 서비스 및 수소 충전 인프라 운영 지원 ▲광양항 배후단지, 광양국가산업단지 운영 중인 지계차 교체 시 수소지계차로의 단 계적 전환 ▲수소 모빌리티(지계차 등) 임대 서비스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상호 협력에 있다.
이번 협약식에서 성종국 한국로지스폴 본부장은 “광양지역에서 수소지계차 임대 1호를 기록하겠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광양시에 찬사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김상철 두산밥캣코리아 ALAO(아시아-라틴아

메리카·오세아니아) 영업 전무는 “두산밥캣은 한국로지스폴과 함께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기홍 여주시 부시장은 “광양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차전지 소재산업과 수소산업을 시장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수소지계차 실증 개발사업과 수소지계차 활용 및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군 소아과 출장 진료 ‘만족도 100%’

이용자 62명 설문...55% “상시 진료 생겼으면”

“한밤 중 고열인 애를 데리고 광주까지 가서 응급처치 받고 왔는데 다음날 마치고 이곳에서 진료 받을 수 있게 돼 멀리 가야되는 부담을 덜게 됐어요. 우리 지역에도 언제든지 다닐 수 있는 소아과가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한 달 전 김기 증세로 열이 오를 3살 아이를 데리고 곡성군 육과통합보건지소를 찾은 곡성군 고달면에 거주하는 한송이씨가 소아과 출장 진료에 만족하면서 상시진료가 최대한 빨리 가능하길 바랐다.
전국 최초로 소아과 출장 진료를 시작한 곡성군이 진료 받은 환자 또는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진료에 만족하며 앞으로 우리 군에서 언제든지 진료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31일간 네이버폼 설문응답을 통해 실시했으며, 출장 진료 이용자 89명 중 응답자 62명의 답변 내용을 분석했다고 13일 밝혔다.
곡성군은 현재 매주 2회(화·금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출장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육과보건지소에 소아청소년과가 생겨서 만족한다’라는 질문에 응답자 62명 모두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어 ‘만족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복수응답 가능한 설문에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답이 총 78건의 응답 중 59%(46건)로 가장 높았으며, ‘의사가 친절하다’는 이유가 24%(19건)로 그 뒤를 이었다. ‘복약 등 치료가 적절하다’는 이유로 14%(11건)를 기록했다.
그간 출장 진료 시행 전까지 주민들은 소아과 진료를 위해 인근 광주나 순천지역의 병원을 1시간씩 운전하며 다녀야 했다. 또 진료 받기 위해 진료소를 방문한 시간대는 오전 9시-10시대가 44명(71%)으로 가장 많았으며, 9시 이전 방문도 12명(19%)이나 됐다. 이는 오전 진료만 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가기 전 시간대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지소에서 소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로로는 ‘학교 또는 어린이집 알림장’을 통한 것이 42%(26명), ‘지인’을 통해서도



곡성군이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아과 출장진료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출장 진료 모습. (곡성군 제공)

35%(22명)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홍보 전단지 등을 통해 직접 전하는 홍보가 언론보도(10명·16%), 인스타그램·의료원 홈페이지(각 2명) 등의 온라인 홍보보다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리고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 이상인 55%(34명)가 ‘상시 진료 운영’을 가장 원했으며, 15명(24%)이 ‘수액실 운영 등 의료장비 추가 구비’를 원했다.
곡성군의 소아과 출장진료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상시진료를 목표로 ‘고향사랑e음’을 통해 전문의 고용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입면에서 15개월 된 손자를 돌보고 있는 조모씨는 “애가 계속 울면 밤새 애태우다 광주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않았지만 이제 출장진료가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멀리 가지 않고 우리 동네에서 바로 갈 수 있는 상시 진료가 이뤄지는 병원이 꼭 생겼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곡성=김대수 기자 bigkim2@kwangju.co.kr

훈훈한 ‘이웃사랑’

보성군 문덕면 복지기동대 등 소외이웃에 연탄 900장 전달

보성군은 지난 12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은(溫)마음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펼쳤다.
(사)따뜻한한반도사랑연탄나눔운동 보성군지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봉사는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 중 연탄에 의존하는 3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00장씩 총 900장의 연탄을 전달하며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했다.
연탄나눔 봉사에는 문덕면 복지기동대와 희망드림협의회, 문덕면사무소 직원 등 22명이 함께 참여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여수산단 안전관리 고도화사업 본격화

4년간 160억 투입...구조물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추진

여수시가 오는 2027년까지 사업비 160억원을 투입해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 내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 4년간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노후 지하배관(488km) 최초 안전진단 실시 ▲사외배관 관련 구조물 각종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시물레이션 기반 침수 화재·폭발 사고 위험예측 모델 개발 등에 나선다.
이번 사업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전남테크노파크·전남대학교·고등기술연구원 등이 함께 참

여하게 된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24시간 관제를 통한 사고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는 등 시민과 근로자 안전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며 발견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국고지원을 건의한 결과 사업비를 확보했다”면서 “4년간 성실한 사업을 추진해 더욱더 안전한 여수산단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